광주시, '청소년디딤센터' 유치 나서

청소년 '상담·치료·자립·교육' 이용 수요·접근성 등 강점 부각 범시민 유치위 구성 공모 박차

광주시가 호남권역 청소년을 위한 거주형 국립치료·재활시설인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

'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자립·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여성가족부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디딤센터는 전국에서 경기도 용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2012년 개관)와 영남권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2021년 개관) 등 2개소가 운영 되고 있다. 호남권역(광주, 전남·전북, 제주) 청소년들은 접근성 한계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2019년 지역 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위기청소년 태스크포스(TF)팀의 제안에 따라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여성가족부 건립 지속 건의, 국비 확보 노력, 정치권의 초당적 지원 요청 등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며, 2022년도 여성가족부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이 과정에서 전북 익산시도 유치전에 도전장을 냈고, 광주와 익산시 대상 공모사업으로 최종 반영됐다.

여성가족부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공모 선정 평가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달 초 공모평가 기준 제시를 시작으로 1개월간 공모제안서 작성기간 부여, 3~4월 심사를 거쳐 6월 중 대상 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용 수요 규모, 제주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호남권역 내 교통요충지인 지리적 이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연계시설, 청소년상담사 등 풍부한 인적자원 등의 강점을 내세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광주시의 타당성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정책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됐으며, 광주 유치가 결정되면 건립과 운영에 따른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역대학, 사회복지시설과 협력해 조만간 '(가칭)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 협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모를 준비할 방침이다.

곽현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호남권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힘들 시기에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디딤센터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광주시 일상회복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1월1일 이후 출생아에 200만원 준다

17일부터 '첫만남이용권' 신청

전남도가 17일부터 도내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접수를 시작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엉터리 공사대장 작성' 광주 건설업체 20곳 적발

기록 무시·지급 보증서 발급 외면

건설공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광주지역 건설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기재 사항 일부를 누락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 20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건설공사대장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공사개요·공사참여자·공사대금 지급현황·하도급 계약 내용 등 건설에 관한 사항을 기재·작성해 발주자에 통보하는 문서다.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 전반을 확인하면서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도록 해당 건설업체가 작성한다.

적발된 업체 11곳은 건설공사대장을 아예 작성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경기 화성 동탄 아파트, 광주 오피스텔·빌딩·주택, 전남 영암 주상복합 신축 공사 등을 하면서 건설공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4곳은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인 하도급 업체를 누락했다. 이들 업체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경·내장 공사를 하고 있다. 5곳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미발급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건설공사대장을 제대로 작성해 발주자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HACCP 적용업소 3억원 식품제조·가공 업소 7천만원

광주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22년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1987년 마련됐으며,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식품산업진흥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융자사업은 광주시에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등록, 신고)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모범업소 등 육성자금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시설개선자금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3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이외 업종 5000만원(화장실·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의 경우 1000만원)이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등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1000만원이다.

융자기간은 융자금 5000만원 미만일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5000만원 이상일 경우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융자이율은 위생시설 개선자금은 연 2%,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모범업소 등 육성자금 및 화장실?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자금은 연 1% 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국민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식품안전과(062-613-4363) 또는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들이 영업장 시설개선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설 준비하세요"

전남도, 21일까지 183개 품목 온오프라인 특판전

굴비·홍어 등 183개 제품

전남도가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21일까지 '설맞이 특별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판촉행사에서는 도내 70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183개 제품을 선보인다.

판매제품은 고기, 굴비,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전복, 홍어, 김부각, 매실, 잡곡 등 선물세트를 비롯해 들기름, 전통된장, 장아찌, 나물, 갓김치 등 특산품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참조은 흑홍삼 세트'는 설맞이 특별가로 75%를 할인하고, 이외 전 품목은 최대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제품은 전남사회적경제쇼핑몰 녹색나눔(greennanum.co.kr),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 남도장터(jnmall.kr), 전남상사 사회적협동조합, 장흥상생상회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전남도는 특판행사와 함께 전국 공공기관과 협력 민간기업에 상품안내서와 주문서를 발송하는 등 유관기관·기업의 동참을 요청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